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김 재 신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김 재 신

전화번호 02) 923-9203

E-mail jaeshin1@korera.ac.kr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36-701)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김 재 신

한 성 열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한가지 시도로써 행하여졌다. 이러한 갈등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이나 불이익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을 상대적으로 공정이 우선시되는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이 우선시되는 인정중심상황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서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수평관계와 수직관계로 조작하여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 않은 반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보다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덜 공정하게 판단하였고 자신과 수평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중심상황에서는 이러한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2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에서 덜 공정하게 판단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상황결과를 조작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결과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 않은 반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덜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권위주의 성격, 공정, 인정, 갈등상황, 판단

김재신은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한성열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이 연구는 후기필자의 지도를 받은 전기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연구에 기여이 도움을 주신 한국석(전남대), 김동직(명지대), 김윤주(서울사이버대), 이누미야 요시유키(서정대), 허태균(한국외대) 교수님과 고려대 정진복, 이주성, 채정민 박사님, 그리고 문화심리연구실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신저자: 김재신,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전화: 02) 923-9203
E-mail: jaeshin1@korea.ac.kr

공정(justice)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덕목이며, 인정(人情)은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중시하는 덕목이다. 따라서 공정과 인정의 갈등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서구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시각은 인정을 전근대적 유물로 여기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는 관점이다(김경동, 1992; 최재석, 1976). 이들은 한국인의 인정지향적 가치가 연고주의, 파벌주의를 낳아 우리사회를 파행적으로 몰고 갔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공공심의 부족(이규태, 1983), 혈연이나 지연에 따른 정실주의(김경동 1992), 및 공익을 생각치 않는 집단이기주의(최재석, 1976) 등도 모두 ‘인정주의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인정을 현재 한국사회에 되살려야 할 가치로 여기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이들은 서구의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통사회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김태길, 1998; 이상은, 1976). 이러한 시각은 유교자본주의, 유교민주주의 등 유교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정과 인정은 각각의 가치가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정은 불공정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불평불만을 예방 또는 제거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인간관계를 계산적이고 수단적 관계가 되게 하며 물질주의적 지향을 하게 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보람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인간관계의 소외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 인정은 상호의 이타적 행동을 통해 대인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결합을 가져오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반면, 집단간 차별행동을 통하여 불공정이나 비리를 야기시키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장성수, 1996). 공정과 인정은 둘다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어 서로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공정과 인정 중에서 어느 한 가치만을 중시하여 선택한다면, 다른 가치의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까지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 본 연구는 공정과 인정이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며 조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공정과 인정의 갈등문제를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정과 인정의 갈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

공정과 인정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또는 각기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다루어지면서 이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정은 정의나 형평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정은 자비, 배려, 이타주의 등의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공정과 인정의 갈등을 다룬 대표적인 심리학적 연구는 Kohlberg(1981)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공정과 ‘자비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도덕판단에서 이 양자가 서로 갈등관계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공정과 자비가 갈등할 때 공정을 우선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자비는 공정에 부수되는 이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공정은 공적인 것인 반면에 자비는 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갈등할 때 공적인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아동들에게 공정에 대한 책무와 자비에 대한 책무 중 어떤 것이 지배적인 도덕률이 되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전자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etana, Bridgeman, & Turiel, 1983). 또한 미국의 성인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개인적인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Higgins, Power, & Kohlberg, 1984). 따라서 미국인들은 공정에 대한 책무를 자비에 대한 책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자비에 대한 책무를 보편적 도덕률로서보다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illigan(1982)은 도덕성의 또다른 측면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지향성(caring)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공정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남성적 특성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배려지향성은 인간관계, 친밀감, 상호 의존성 등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Gilligan의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공정과 배려지향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 차원에서는 권리간의 갈등이 주로 도덕적 문제의 원인이 되며 형식적, 추상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요구들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공정성의 방법을 가지고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반면, 배려지향성 차원에서는 책임간의 갈등을 도덕적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맥락적, 담화적인 사고방식과 포함(inclusion)의 방법을 가지고 도덕적 갈등을 해결한다. 또한 공정 차원에서 자아를 분리된 개별적, 자율적 자아로 보는 반면, 배려지향성 차원에서는 자아를 거미줄 같은 관계의 망을 통해 연결된 상호의존적 자아로 보고 있다(박병춘, 2002).

Miller와 Bersoff(1992)는 인도와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친구와의 우정과 사회적 정의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우정을 선택하고 미국인들은 정의를 선택하였으며, 인도인이건 미국인이건 각각 자신의 선택이 더 도덕적인 것으로 여겼다. 또 다른 연구(Shweder, Mahapatra, & Miller, 1987)에서 친구나 친척의 기대를 어기는 행위를 인도인들은 도덕의 문제로 보는 반면, 미국인들은 이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Miller, Bersoff와 Harwood(1990)는 인도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행위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양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설명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인도인은 도움행위를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책무의 일부로서 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인은 생사가 걸린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도덕적 책무의 일부로 여길 뿐이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곤경에 처한 경우에는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하는 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자비를 정의보다 우선하는 도덕률로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적 판단에서의 차이는 각 문화권에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기본 가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지향적 문화를 낳게 되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justice)의 원리가 지배적인 가치로 등장하게 된 반면에, 동양의 집단주의는 인간간의 관계 지향적 문화를 낳게 되어 집단의 화합을 존중하는 선행(altruism)의 원리가 지배적인 가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Miller & Bersoff, 1992).

한국사회에서의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의 전통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다.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은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 파악하고 집단의 결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 것이다(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집단주의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한국문화에서는 사람들간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단위, 즉 '우리'로 지각한다. 최상진과 최수향(1990)이 한국과 캐나다에서 '우리'의 의미를 비교분석한 결과, 캐나다인에게서 '우리'는 '우리'속에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한국인에게서 '우리'는 '우리'속에 내가 융합되어 있는 '나'와 '우리'가 미분화된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우리'로 지각되는 관계에서는 이해타산과 같은 교환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관심, 즉 이타적 관심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타적 관심은 한국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인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인의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로 간

주되어 왔으며(김재은, 1987; 윤태립, 1970; 차재호, 1980), 현재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있다(한덕웅, 이정성, 2003).

인정은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처럼 생각하여 그를 도우려는 행동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이수원, 이현남, 1993), 이는 유교적 전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공자의 인(仁)은 친족에 대한 혈연의 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차 먼 친척, 이웃 그리고 마을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타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승환, 1998), 맹자의 ‘친친이인민(親親而仁民) 인민이애물(仁民而愛物)’이라는 말은 친친(親親)과 애물(愛物)이 같다는 것으로 육친간에 우러나오는 정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에까지 투영된다는 뜻이다(이수원, 이현남, 1993).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나은영, 차재호, 1999; 이종한, 2000; 한규석, 신수진, 1999; 한성열, 안창일, 1990).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인간관계는 거래적 또는 교환적 성격을 지니며 여기서는 공정이 개인의 이기성으로부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강력한 규범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의 특성과 맞물려 정실주의, 사사(私事)주의, 연고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혈연이나 지연에 따른 정실주의는 인사불공정, 지역감정의 문제는 물론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임희섭, 1980). 이와 함께 전통사회에서 중시되었던 인정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점차 그 적용범위가 좁아져 집단이기주의나 가족이기주의로 변질되기도 하였으며, 서구에서 받아들인 개인주의 역시 한국사회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현대 한국인들의 개인주의는 일종의 무규범상태에서의 방어기제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법과 규범 및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과 불안정 속에서 자기와 자기이익만을 지키고 추구하려는 이기적 성격의 개인주의가 광범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신수진, 최준식, 2002; 임희섭, 2001). 최봉영(1994)은 한국사회가 구한말 이후 신(新)과 구(舊), 동(東)과 서(西)의 문화가 공존하게 되면서 규범의 과도기적 이중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중 규범이 사회혼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 규범은 상황에 따라 규범의 선택과 적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며, 이는 자신의 의사대로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강자들에게는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반면 규범의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약자들은 더욱 불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의 가치규범과 한국 전통사회의 가치규범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치규범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혼재되어 나타나면서 많은 사회적,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과 인정의 갈등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조망이나 특성, 사회적 정체감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장성수, 이수원과 정진곤(1990)은 정의판단의 준거로서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제시하고 개인지향에서는 공정조망을 갖게 되고 집합지향에서는 인정조망을 갖게 됨을 확인하였고, 공정을 선호하는 집단이 인정을 선호하는 집단보다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물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도움을 주었을 때도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정체감이론을 적용한 이현남과 이수원(1993; 이수원, 이현남, 1993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체를 형성시킨 집단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인정의 책무보다 공정의 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권위주의 성격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

권위주의 성격은 지배와 복종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권력과 권위에 무조

건 맹종하고 순종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권력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Fromm(1941/1988)은 권위주의 성격을 가학증(sadism)과 피학증(masochism)이 결합된 가학-피학증적 성격(sado-masochistic personality)으로 파악하고, 권위주의 성격이 인간을 상하관계의 계층에 놓고 우열을 가리며, 강자에게는 무조건적 복종을 하고 약자에게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라고 하였으며, 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과 Sanford(1950)는 권위주의 성격이 여러 소수 집단들에 대한 편견, 권위에 대한 모종의 감정(sentiment) 같은 것인데, 여기에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 아랫사람에 대한 가혹함, 그리고 권력과 지배가 중요하다는 전반적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권위주의 성격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제시한 9개 특성은 (1) 관습적인 중간계급의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습주의, (2) 권위주의적 순종과 무비판의 태도, (3) 권위주의적 공격성, (4) 주관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부드러운 심성을 반대하는 반내성(anti-intraception)의 성향, (5) 미신에 대한 믿음과 고정관념의 성향 (6) 권력과 강인성에 대한 집착 (7) 파괴성과 냉소주의, (8) 세상에는 험악하고 위험한 일들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투사성의 성향, (9) 성적 난무에 대한 과장된 관심을 나타내는 성향이다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권위주의 성격은 인지적 경직성과 애매함을 못참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Block & Block, 1951; Frenkel-Brunswik, 1949; Rokeach, 1948), 소수집단의 성원을 배척하고 보수적인 정치, 경제적 태도를 지니고 권력자나 권위자의 태도를 수용하며(Izzett, 1971), 권위에 복종적인 행동을 보이며(Elms & Milgram, 1966),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후보들에게 투표하며(Higgins, 1965), 자신의 아이들을 전통적 양육방식으로 길렀다(Levinson & Huffman, 1955). 또한 권위주의 성격과 편견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흑인(Altemeyer, 1998; McFarland & Adelson, 1996, 1997; Whitley, 1998), 미국 원주민(Altemeyer, 1998), 여성(Altemeyer, 1998; Duncan, Peterson, & Winter, 1997; McFarland & Adelson, 1996, 1997), 동성애자(Whitley & Lee, 2000), 장애인(Noonan, Barry, & Davis, 1970), AIDS 환자(Cunningham, Dollinger, Satz, & Rotter, 1991; Peterson, Doty, & Winter, 1993)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emeyer(1981)는 권위주의를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인습주의라는 세 가지 태도요소로 구성되는 일종의 복합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측정하는 보수권위주의척도(right-wing authoritarianism)를 제작하였다. 그에 의하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right-wing authoritarian)은 합법적 권위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합법적 권위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 태도를 보이거나 처벌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그는 권위주의 성격의 발달을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으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대상과의 경험을 의해, 혹은 모방을 통해 권위주의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특히 중요한 모델로서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제로 부모와 자식의 권위주의 성격을 측정한 연구에서 두 척도점수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Altemeyer, 1988; Peterson, Smirles, & Wentworth, 1997).

국내에서 권위주의 성격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편견과의 관계나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의 관계를 살펴본 민경환(1989)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보다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 즉 내집단중심성이 높았고, 상대방을 파악할 때 출신도, 성, 종교, 계층 등의 집단분류도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호(1999)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더 고정관념적으로 지각하며 더 부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현주, 정진경(1996)의 연구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피평가자의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수행평가에 차이를 보였고 남자인 경우에 더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수애(1998)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구체적인 범례정보보다 추상정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를 판단에 사용함으로써 편견을 강하게 갖게 된다고 하였다.

권위주의 성격과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점은 전통적인 집단주의 문화가 급격하게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규범부재(anomie)현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성열(1993)은 현재 한국사회의 제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문화를 고수하고 찬양하는 국수주의도 배격해야 할 뿐 아니라, 서구적인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에 급급한 실익은 보편주의도 또한 경계하여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과제는 우리 문화를 분명히 이해하고 서구문화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수원과 이현남(1993)은 인간의 도덕행동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공정과 인정의 덕목 중에서 어느 하나의 덕목을 절대적인 도덕률로 신봉하는 데서 빚어졌다고 보고, 공정과 인정이 어느 하나의 덕목으로 확립화될 때보다 두 덕목이 조화를 이룰 때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성수 등(1990)은 공정과 인정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1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2차원적 개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은 공정이 중시되는 상황과 인정이 중시되는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정이 중시되는 상황은 위급하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들은 모두 먼저 오는 순서대로 진찰을 받지만, 갑자기 아픈 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먼저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 것이다. 또한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빨리 병원으로 가고 있는 운전자를 교통사고 위반으로 적발한 교통경찰의 경우, 규칙에 따라 위반딱지를 발부하는 것보다 위반딱지를 발부하지 않고 운전자가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적절한 행동일 것이다.

공정과 인정을 2차원적 개념으로서 상호독립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을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을 구분한다면,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중심상황에서 공정을 택하지 못하고 인정중심상황에서 인정을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과의 관계나 이익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이다.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수직관계로 보고 강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해야 할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윗사람의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하며, 윗사람의 비리를 알았을 때에도 그것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수직관계가 개입되면 공정해야 할 상황에서 공정치 못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약자에 대해서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수평관계에 있는 직장동료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그를 약자로 여기고 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비리가 드러난 이상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잡힌 것이므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적 태도는 또한 자신보다 아랫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을 베풀어야 할 인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곤경에 처한 상대방을 약자로 여기고 권위주의적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수평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행위를 하지 않거나 인정행위를 택하는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탁하는 상대방이 직장상사와 같이 자신보다윗사람일 경우에는 수평관계에서와는 반대로 인정을 베풀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는 이와 같은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을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에서 각각 당사자간의 관계를 조작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 Altemeyer(1996)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민감하며 내집단과 외집단에 서로 다른 기준, 즉 내집단을 더 이롭게 판단하는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내집단중심성이 높고 소수집단에 대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는 것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충성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좀처럼 발생하지 않게 된다. 연구 2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결국 윗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얻게 되는 이익 때문이거나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가정하고 이를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을 이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상황에서의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는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 질문을 구성하였다.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은 단순히 개인이 가진 태도나 호오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갈등상황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사회규범이 관여하는 사회적 차원의 갈등상황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갈등도 그만큼 커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 준거에 의한 것이며, 자신이 실제로 선택하는 행동에 대한 판단은 도덕적 준거와 함께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 요인들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실제 행동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들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Blasi, 1980 참조).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과 그 근거를 살펴본 한규석(2000)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공정행위를 지향하지만 다른 일반사람들은 인정행위를 많이 보일 것으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행위판단을 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행동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부분 공정행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자신이 당사자라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감소하였으며, 이는 당사자간에 서로 모르는 상황보다 서로 잘 아는 상황일 경우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시나리오상황을 당사자들끼리 어느 정도 아는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두가지 종속변인을 설정하여 갈등상황에서의 판단과 그 판단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1

연구1에서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을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서 관계를 조작하여 수평관계조건과 수직관계조건으로 나누어 개인의 권위주의 성격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판단을 내리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자신보다윗사람에게는 공정해야 할 상황에서 덜 공정하게 대하고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인정을 베풀 것이며, 자신과 수평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와 반대로 반응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98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정확치 않아 자료로 쓸 수 없는 1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는 96명(52.2%), 여자는 88명(47.8%)이었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22세였으며 남자가 평균 23세, 여자가 평균 21세였다.

측정도구

갈등상황 조작 및 종속변인 설정

공정과 인정의 갈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윗사람의 부정이나 비리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이 중시되는 공정중심상황으로 비리고발상황을 구성하였다. 비리고발상황은 직장상사 혹은 직장동료의 비리를 알았을 때, 이를 상부에 보고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정중심상황-수직관계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평관계조건에서는 이부장을 이과장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윤과장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 직장상사인 이부장에게 신세도 지고 여러가지 도움도 받았다 어느 날 윤과장은 이부장의 비리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할지 말지 고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정중심상황-수직관계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평관계조건에서는 이과장을 이씨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최씨는 기차역 매표소에서 일하고 있다. 주말에 연휴가 겹쳐 기차역은 나들이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최씨가 맡은 매표소 창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려고 줄서 있었다. 갑자기 옆 부서에서 일하는 이과장이 찾아왔다. 이과장은 자기 고향집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급히 내려가 봐야 한다며, 기차표를 먼저 끊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차재호와 구자숙(1999)은 사회적 시나리오를 찾는 조사연구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중요시되며 갈등의 원인

이 되는 9가지 감정차원들을 느끼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사람답게 느끼게 하는 상황은 꾸준한 노력을 할 때나 남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희생적으로 도울 때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반대로 사람답지 않게 느끼게 하는 상황은 남을 고려하지 않고 의당히 보여야 할 존경심, 자비심 등의 감정을 보이지 않을 때나 무자비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앞에서와 같은 인정중심상황을 구성하였다.

각 상황에서 수평, 수직관계조건은 참가자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에는 공정중심상황에서 수평, 수직관계조건 중 한 조건과 인정중심상황에서 수평, 수직관계조건 중 한 조건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에서의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서 2가지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선택 행동에 대한 판단으로, 제시된 갈등상황에서 응답자라면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반드시 인정행위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며, 7점에 가까울수록 반드시 공정행위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중간점수인 4점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다. 둘째는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으로, 제시된 갈등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인정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옳다고 응답한 것이며, 7점에 가까울수록 공정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옳다고 응답한 것이다. 중간점수인 4점은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응답이다.

권위주의 성격 척도

권위주의 성격 척도는 Altemeyer(1998)가 제작한 보수 권위주의 척도(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Scale)의 1997년판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32문항이며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인습주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 권위주의 척도(RWA는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 서독, 호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Martin, 2001).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척도의 Cronbach' α 는 .80에서 .90사이였다

신뢰로운 척도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자가 우선 척도의 일차변역을 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심리학 전문가가 검토,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전체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게 나온 문항($r < .20$)인 12번 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12번 문항을 제외한 총 31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9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검사의 9 점 척도를 '매우 불찬성 ~ 매우 찬성'의 7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결과분석은 먼저 전체 연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각 관계조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반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응답자의 전반적인 판단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권위주의의 성격특성과 행동판단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비교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만약 일반적인 경향이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권위주의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판단이 권위주의의 성격특성 때문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 상황에서 권위주의의 성향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권위주의 성격에 따라 종속변인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상황설정 검증 및 일반경향 분석

상황설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참가자들이 각 상황에서 옳은 행동에 대해 7점 척도로 판단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의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의 평균치가 중간점수인 4점을 기준으로 정확하한계인 3.5보다 낮으면 그 상황에서 인정행위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며, 4점의 정확상한계인 4.5보다 높으면 그 상황에서 공정행위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정중심상황에서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은 모두 4.5보다 높았으며, 인정중심상황에서의 판단도 모두 3.5보다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설정한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이 각각 공정이 중시되는 상황과 인정이 중시되는 상황으로 타당하게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상황 내에서 관계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옳은 행동과 선택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녀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82) = 2.399, p < .05$. 또한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에서 공정행위를 하겠다고 선택한 정도가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t(182) = 2.024, p < .05$; $t(182) = 2.137, p < .05$.

마지막으로, 종속변인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상황에서 옳은 행동과 선택행동에 대한 판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공정중심상황의 수평관계조건과 수직관계조건에서 각각 종속변인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t(91) = 3.957, p < .001$; $t(91) = 5.182, p < .001$, 인정중심상황의 수평관계와 수직관계에서도 각각 종속변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91) = 5.372, p < .001$; $t(91) = 6.208, p < .00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갈등상황이 옳은 행동과 선택행동의 판단간에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임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차이는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상황에서의 판단을 모두 인정행위(1점)와 공정행위(7점)를 양극으로 하는 단일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공정행위를 택한 정도가 높은 것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인정행위를 택한 정도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표 1은 공정중심상황에서는 공정행위를 택한 정도가 선택행동의 판단보다 옳은 행동의 판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인정중심상황에서는 인정행위를 택한 정도가 옳은 행동의 판단보다 선택행동의 판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규범이 개인에게 내재화된 것이 개인의 갖는 도덕적 준거이고 이에 따라 각 개인이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면, 인정중심상황에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실제행동의 판단보다 낮다는 것은 응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인정을 베푸는 것을 사회적, 도덕적 책무로 여기기보다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평, 수직관계에 따른 권위주의 집단간 비교

결과분석을 위해 권위주의 성격 척도점수에 따라 상, 하위 30%로 구분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0%를 권위주의 고집단($N = 53, M = 125.81$)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30%를 권위주의 저집단($N = 55, M = 72.35$)으로 구성한 후, 각 상황별로 권위주의 고집단과 저집단을 비교하였다.

먼저 공정중심상황에서 수평, 수직관계에 따른 권위주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2(집단: 권위주의의 저 집단 대 고집단)×2(관계: 수평관계 대 수직관계)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정중심상황의 선택행동과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모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F(1,104) = 6.848, p < .05$; $F(1,104) = 5.181, p < .05$,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집단과 관계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택행동의 판단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중심상황-수평관계조건에서 권위주의의 고집단($M = 5.17$)은 저집단($M = 4.22$)보다 공정행위를 선택한 정도가 높았으나, $t(54) = 2.256, p < .05$, 수직관계조건에서는 권위주의 집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옳은 행동의 판단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는 공정중심상황-수평관계조건에서는 권위주의 집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직관계조건에서는 권위주의의 고집단($M = 4.62$)이 저집단($M = 5.39$)보다 공정행위를 옳다고 판단한 정도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t(50) = 2.472, p < .05$.

상호작용효과와 함께 권위주의의 고집단과 저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관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권위주의의 고집단의 경우 선택행동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수평, 수직관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t(51) = 3.092, p < .01$,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권위주의의 저집단의 경우에는 선택행동과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 모두에서 수평, 수직관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권위주의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권위주의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공정행위를 하겠다는 정도가 달랐으며 수평관계에서보다 수직관계에서 공정행위를 선택한 정도가 낮았다.

인정중심상황에서 2(집단: 권위주의의 저집단 대 고집단)×2(관계: 수평관계 대 수직관계)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택행동과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모두 상호작용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관계의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F(1,104) = 4.633, p < .05$. 이는 인정중심상황에서 수직관계보다 수평관계에서 인정행위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조건별로 t 검정한 결과 인정중심상황의 수평관계, 수직관계에서 모두 권위주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정중심상황이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으로 상황적 압력이 컸기 때문에 권위주의의 성격과 같은 개인의 성격특성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았듯이 공정중심상황의 조건들의 판단평균치는 중간점수 4점을 기준으로 .32 ~ .99의 차이를 보였지만, 인정중심상황의 조건들에서는 .99 ~ 1.82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정중심상황에서 인정이 요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공정중심상황에서 공정이 요구되는 정도보다 더 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인정중심상황에서의 상황적 압력이 더 높았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신보다 위사람에게 인정을 베푸는 수직관계조건의 상황은 현실에서는 매우 드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 권위주의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모두 수직관계보다 수평관계에서 인정행위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옳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권위주의 집단에 따른 종속변인간 차이 분석

앞에서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경향 분석시, 모든 상황에서 옳은 행동과 선택행동의 판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2(관계: 수평관계 대 수직관계)×2(행동판단: 옳은 행동의 판단 대 선택행동의 판단)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에서 모두 행동판단의 주효과만이 관찰되

었다, $F(1,182) = 42.436, p < .001$; $F(1,182) = 67.401, p < .001$. 즉, 옳은 행동과 선택행동의 판단간 차이는 수평, 수직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이 권위주의 집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관계와 행동판단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저집단의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동판단의 주효과만 발견되었다, $F(1,53) = 27.479, p < .001$. 그러나 권위주의 고집단의 경우 행동판단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F(1,51) = 6.304, p < .05$. 이를 권위주의 저집단과 비교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권위주의 고집단의 경우 수직관계조건에서는 옳은 행동과 선택행동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t(28) = 3.087, p < .01$, 수평관계조건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권위주의 저집단의 경우나 일반적인 경향과 비교해 볼 때, 권위주의 고집단이 공정중심상황-수평관계조건에서 선택행동에 대한 판단의 정도가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의 정도와 차이가 없을 만큼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성격의 공격적 특성의 발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윗사람과의 수직관계에서는 직장상사의 비리를 고발해야 한다는 도덕적 준거와 직장상사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 복종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옳은 행동과 선택행동 간의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켰으나, 수평관계에서는 직장동료의 비리를 고발해야 한다는 도덕적 준거가 권위주의적 공격성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 갈등이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평관계조건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직장동료의 비리를 고발하는 공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주의적 공격성을 표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인정중심상황에서는 권위주의 저집단의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행동판단의 주효과만 보였다, $F(1,53) = 29.232, p < .001$. 권위주의 고집단의 경우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행동판단의 주효과와 관계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F(1,51) = 22.923, p < .001$; $F(1,51) = 4.077, p < .05$. 여기서 나타난 관계의 주효과는 권위주의 고집단이 앞에서 권위주의 집단과 관계의 이원변량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수직관계보다 수평관계에서 더 인정행위를 택하였음을 의미한다.

연구1의 결과를 요약하면,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선택행동의 판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자신보다윗사람에게는 덜 공정하게, 자기와 수평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중심상황-수직관계조건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공정행위를 옳다고 판단한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인정중심상황에서는 권위주의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 구 2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덜 공정하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2는 공정중심상황에서 나타난 연구 1의 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동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윗사람을 존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복종할

때 얻어지는 이익, 혹은 복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상황결과를 조작하여 서로 다른 상황결과에 따라 앞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즉, 상사의 공금횡령 혐의조사에 협조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에 이어 공금횡령혐의 조사결과 상사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 경우와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이러한 상황결과가 앞서 이루어지는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만약 당사자가 상사의 공금횡령혐의 조사에 협조하기로 판단한다면, 나중에 상사가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사의 혐의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혐의가 인정되어 상사가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98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정확치 않은 1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4명의 자료(남자 96명, 여자 88명)를 분석하였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22세(남자 23세, 여자 21세)였다.

측정도구

갈등상황 조작 및 종속변인 설정

한규석(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사비리상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무혐의조건은 다음과 같다.

김과장은 평소에 최부장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업무상 힘든 점을 여러번 도와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최부장이 공금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감사반은 김과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다. 김과장은 최부장과 평소 친분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감사반의 조사에 협조하였다. 조사결과 최부장은 무혐의로 밝혀졌고 김과장은 그로 인해 최부장과의 사이가 서먹해졌다.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혐의조건에서는 밑줄 친 부분을 '조사결과 최부장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로 바꾸어 제시하였으며 혐의와 무혐의의 결과조건은 참가자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상황을 제시한 후 응답자에게 자신이 김과장이라면 감사반의 조사에 협조할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게 하였다. 종속변인은 연구 1에서와 동일하게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과 선택행동에 대한 판단, 두가지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권위주의 성격 척도

연구 1에서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상황설정 검증 및 일반경향 분석

먼저 결과분석에 앞서 연구 2에서 설정한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에서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은 무협의조건 ($M = 4.75$, $SD = 1.03$)과 혐의조건 $M = 4.96$, $SD = 1.43$)에서 모두 중간점수 4점의 정확상한계인 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 1에서 사용한 공정중심상황과의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평균치 비교에서도 두 상황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설정이 타당하고 균형있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상황결과에 따른 판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과 선택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모두 혐의조건과 무협의조건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황결과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혐의조건에서 종속변인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t(91) = 2.957$, $p < .01$, 무협의조건에서는 옳은 행동과 선택행동에 대한 판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후분석(권위주의 집단에 따른 종속변인간 차이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

상황결과에 따른 권위주의 집단간 비교

연구 1에서와 동일하게 권위주의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성한 뒤, 상황결과에 따른 권위주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집단: 권위주의 저집단 대 고집단)×2(상황결과: 무협의 대 혐의)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3에서 보듯이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고 $F(1,104) = 4.938$, $p < .05$, 집단과 관계의 주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선택행동에 대한 판단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옳은 행동의 판단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무협의조건에서는 권위주의 고집단 ($M = 4.45$)이 저집단($M = 5.09$)보다 공정행위를 옳다고 판단한 정도가 낮았으나, $t(50) = 2.359$, $p < .05$, 혐의조건에서는 권위주의 집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혐의조건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무협의조건에서만 나타난 것은 자신이 상사의 공금횡령 혐의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혐의가 인정되어 상사가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상사의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므로 상사의 혐의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 복종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무협의조건에서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권위주의 집단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상은 연구 1의 공정중심상황-수직관계조건에서 권위주의 집단의 효과가 옳은 행동의 판단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집단간 차이가 옳은 행동의 판단에서 발견되고 선택행동의 판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은 상황적 압력이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보다는 선택행동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실제 현실상황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현실상황에서 항상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그것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과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강도, 실천하고자하는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은 실제 현실여건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을 지닌 잠재적 행동요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상호작용효과와 함께 권위주의 고집단과 저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집단 내에서 상황결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권위주의 저집단은 상황결과에 따라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권위주의 고집단은 상황결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t(51) = 2.280, p < .05$. 즉,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결과에 따라 공정행위가 옳다고 판단한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상사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보다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에 상사의 혐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정도가 낮았다.

연구 2의 결과를 요약하면,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결과에 따라 옳은 행동의 판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결과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직장상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사의 혐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정도가 높았으나, 직장상사의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에는 상사의 혐의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정도가 낮았다. 또한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은 무혐의조건에서 나타나고 혐의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써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공정과 인정을 상호독립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을 공정이 중시되는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이 중시되는 인정중심상황으로 구분한 후 각 상황에서 관계를 조작하여 수평관계조건과 수직관계조건으로 나누어 권위주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윗사람과의 수직관계에서는 덜 공정하게 판단하였고 자신과 수평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는 수직관계조건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직장상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덜 옳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직장동료와 직장상사에 따라 비리를 고발하는 행동을 선택한 정도가 달랐으며, 직장상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행동을 선택한 정도가 더 낮았다.

김우영과 노병만(1998)은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부정부패 중 권력형 부정부패는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사회의 다른 모든 부분에 거의 다 관련성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떤 사회부분의 비리보다 본질적이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상관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방관하거나 협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인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이 권위주

의 성격보다 수평, 수직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수직관계보다 수평관계에서 더 인정행위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정중심상황이 사람이 생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으로 설정되어 상황적 압력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인정행위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상황적 압력의 강도에 따라 여러 수준의 상황을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평, 수직관계에 따른 판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상황을 설정하였는데, 그 중 인정중심상황-수직관계조건은 현실에서 매우 드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기보다는 명령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으며, 수직관계보다 수평관계조건에서 인정행위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옳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황결과를 조작하여 살펴보았다. 나중에 일어날 상황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 때,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황결과에 영향을 받아 자신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결과에 따라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결과에 따라 옳은 행동에 대한 판단이 달랐으며, 직장상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보다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에 상사의 공금횡령 혐의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덜 옳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권위주의 성격의 복종특성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윗사람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무혐의조건에서는 나타난 것은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따라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험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과 인정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1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독립적이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2차원적 개념이라고 가정하고 구체적으로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을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분은 공정과 인정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 기반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서 개인의 권위주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Altemeyer(1996)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상당히 뚜렷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원칙과 기준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은 가치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와 같은 이중가치체계의 현실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범의 선택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편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며, 이러한 편의주의적 방식은 사회적 약자보다 자신의 의사대로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강자들에게 더욱 편리함을 가져다준다(최봉영, 1994). 이러한 이중가치체계의 현실 속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이중성은 쉽게 정당화되는 한편, 강자들이 편의주의적 방식을 부추김으로써 가치혼란 상태를 지속시키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수평관계와 수직관계로 조작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면부지의 타인에서부터 직장동료, 학교선배, 친구, 친척, 가족 등 수많은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인간관계의 측면을 다루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전통적 가치로 내세운 인정이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모르는 타인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이 더 세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각 상황은 그 정도에 따라 공정 혹은 인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과 약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각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권위주의 성격의 영향이 실제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공정과 인정의 갈등을 개인의 성격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성격특성 외에도 동기나 태도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과 인정의 갈등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치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의 일부로서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성격 속에 내면화되고 사회구조와 밀접히 관계되는 것이다. 또한 가치는 성격 체계의 한 구성요인이지만,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고 그 경험은 개인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 사회구조 및 성격을 연결하는 개념이 된다(신수진 최준식 2002). Foucault(1984/1990)는 도덕적 행위가 법이나 규칙 가치에 부합되는 행위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현실 및 자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도덕적 주체정립을 추구하지 않는 도덕적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혼란은 사회적, 문화적 혼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도덕적 자아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정과 인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Niebuhr(1932/1992)는 사회를 중심으로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justice)이며,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altruism)이라고 하였다. 이 중 한 가치덕목은 다른 가치덕목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실현될 수 없으며, 정의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한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덕목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것이다.

서구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한가지 시도가 두 가치의 장점을 취합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라면 다른 한가지 시도는 두 가치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속성을 발견하여 이를 분석하는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가치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권위주의 성격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동 (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서울: 박영사.
- 김우영, 노병만 (1998). 한국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인과 개혁방안. 법정연구, 5, 121-152.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김태길 (1998). 공자사상과 현대사회.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박병춘 (2000).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울력.
- 신수진, 최준식 (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 집문당.
- 윤태림 (1970). 한국인. 서울: 현암사.
-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 이상은 (1976). 유학과 동양문화. 서울: 범학.
- 이수원, 이현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pp. 61-80. 10월 서울: 서울대 교수회관.
-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 출판부.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201-219.
- 임희섭 (1980). 현대한국에 있어서의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간, 한국의 사회와 문화, 3집
- 임희섭 (2001). 한국인의 공공정신, 무엇이 문제인가? 철학과 현실, 여름, 49-60.
- 장성수 (1996). 산업조직에서의 공정성과 인정성의 효과. 교육논총, 12, 117-148.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3, 217-265.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일반이론의 구성. 서울: 느티나무.
- 차재호 (1980).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차재호, 구자숙 (1999). 사회적 시나리오를 찾기 위한 예비 연구: 관계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의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203-217.
- 최재석 (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한규석 (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39-63.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17(1), 49-67.
- 한성열 (1993).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pp. 45-59. 10월. 서울: 서울대 교수회관.
- 한성열, 안창일 (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16-128.
-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Altemeyer, B. (1988). *Enemies of freedom: Understan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San Francisco: Jossey-Bass.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1), 47-92.
- Blasi, A. (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1-44.
- Block, J., & Block, J. (1951). An investigation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19, 303-311.
- Choi, S. & Choi, S. (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Cunningham, J., Dollinger, S. J., Satz, M., & Rotter, N. (1991). Personality correlates of prejudice against AIDS victim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9, 165-167.
- Duncan, L. E., Peterson, B. E., & Winter, D. G. (1997). Authoritarianism and gender role: Toward a psychological analysis of hegemon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41-49.
- Elms, A. C., & Milgram, S. (196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bedience and defiance toward authoritative command.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2, 282-289.
- Foucault, M. (1990).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history of sexuality*]. (문경자, 신은영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전은 1984에 출판)
- Frenkel-Brunswick, E. (1949).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18, 108-143.
- Fromm, E. (1988).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 (지경자 역). 서울: 홍신문화사. (원전은 1941에 출판)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the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Higgins, A., Power, C., & Kohlberg, L. (1984). The relationship of moral atmosphere to judgement of responsibility. In W. Kurtines & J.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 pp. 74-106. NY: Wiley.
- Higgins, J. (1965). Authoritarianism and candidate preference. *Psychological Reports*, 16, 603-604.
- Izzet, R. (1971).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the Vietnam War as reflected in behavioral and 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45-148.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Vol. 1. Essays in mor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Levinson, D. J., & Huffman, P. E. (1955). Traditional family ideology and its relation to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23, 251-273.
- Levy, M. J. (1962). Some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the Problem of Modernization in China and Japa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0(3).
- Martin, J. L. (2001).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50 years later: what lessons are there for political psychology? *Political Psychology*, 22(1), 1-26.
- McFarland, S. G., & Adelson, S. (1996). *An omnibus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prejudi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olitical Psychology.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 McFarland, S. G., Adelson, S. (1997). *Toward a typology of prejudiced perso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olitical Psychology, Montreal, Quebec, Canada.
- Miller, J., & Bersoff, D. (1992). Culture and moral judge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Miller, J. G., Bersoff, D. M., & Harwood, R. L. (1990). Perce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Moral imperatives or personal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3-47.
- Niebuhr, R. (1992).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은 1932에 출판)
- Noonan, J. R., Barry, J. R., & Davis, H. C. (1970). Personality determinants in attitudes toward visible dis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38, 1-15.
- Peterson, B. E., Doty, R. M., & Winter, D. G. (1993).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contemporary social iss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174-184.
- Peterson, B. E., Smirles, K. A., & Wentworth, P. A. (1997). Generativity and authoritarianism: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political involvement, and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04-1216.
- Rokeach, M. (1948). Generalized mental rigidity as a factor in ethnocentris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3, 259-278.
- Shweder, R., Mahapatra, M., & Miller, J.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India and United States*. In K.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pp. 1-8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etana, J., Bridgeman, D., & Turiel. (1983). *Differentiation of domains prosocial development* . pp. 163-183. San Diego: Academic Press.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 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Whitley, B. E., Jr. (1998).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s independent dimensions of prejudice*. Paper presented at the 10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Whitley, B.E., Jr., & Lee, S. E. (2000). The relationship of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constructs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44-170.

K C I

Who Has Double Standards?

Social Judgments in the Conflict between Justice and Incheong (humaneness)

Jaeshin Kim

Behavioral Science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Seong-Ye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nflict between justice of modern value and Incheong (humaneness) of traditional value in Korean society. The main reason for this conflict is that people judge and behave on their double standards. Study 1 examined the effects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on social judgments in the conflict between justice and Incheong.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two kinds of scenarios - justice-centered and Incheong-centered scenarios involving either the relationship to superior or colleague, and they were asked to imagine themselves as the person of the scenarios and make their own judg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in justice-centered situations, low authoritarian people tended to judge fairly regardless of their relationship, but high authoritarian people tended to judge differently; they judge more benevolently to their superiors while judging more harshly to their colleague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high and low authoritarian people was not significant in Incheong-centered situations. Study 2 investigated why high authoritarian people judge more benevolently to their superiors in justice-centered situation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in justice-centered situations, the low authoritarian people tended to judge fairly to their superiors regardless of their possible disadvantage resulting from their judgments, but high authoritarian people tended to judge more benevolently to their superiors on condition that they can benefit from the relationship to their superiors.

Keywords: authoritarianism, justice, Incheong (humaneness), conflict, social judgments

표 1.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평균치

상황 구분		평 균 (선택행동/옳은행동)	표준편차 (선택행동/옳은행동)
공정중심상황	수평관계	4.46/4.85	1.57/1.41
	수직관계	4.32/4.93	1.37/1.17
인정중심상황	수평관계	2.18/2.71	1.03/1.32
	수직관계	2.33/3.01	1.27/1.35

주. 평균이 7점에 가까울수록 공정행위를 택한 정도가 높은 것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인정행위를 택한 정도가 높은 것임. 이하 모든 표와 그림에 해당됨.

K C I

표 2. 공정중심상황과 인정중심상황에서의 권위주의 집단간 비교

상황 구분		권위주의 저집단 (선택행동/옳은행동)	권위주의 고집단 (선택행동/옳은행동)
공정중심상황	수평관계	4.22 / 4.69	5.17 / 5.08
	수직관계	4.57 / 5.39	4.00 / 4.62
인정중심상황	수평관계	2.25 / 2.75	1.79 / 2.25
	수직관계	2.39 / 3.17	2.14 / 2.90

K C I

표 3.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에서의 권위주의 집단간 비교

상황 구분		권위주의 저집단 (선택행동/옳은행동)	권위주의 고집단 (선택행동/옳은행동)
공정중심상황-수직관계	무혐의	4.78 / 5.09	4.48 / 4.45
	혐의	4.53 / 4.72	4.83 / 5.17

K C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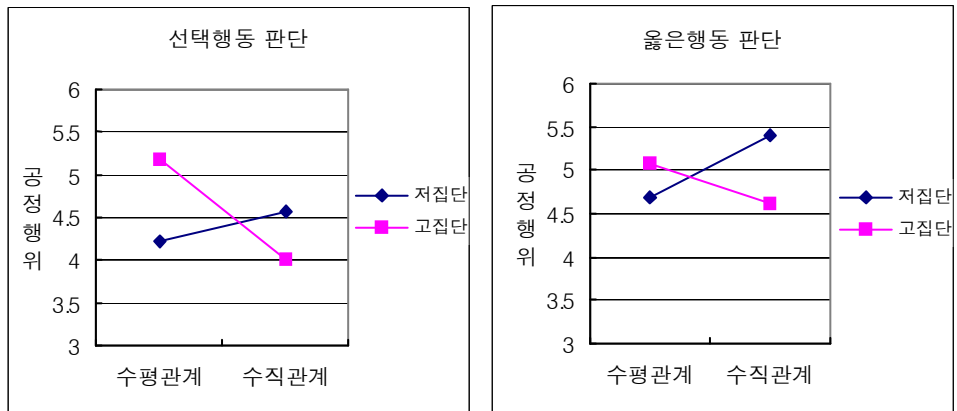


그림 1.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집단과 수평 수직관계의 상호작용효과

K C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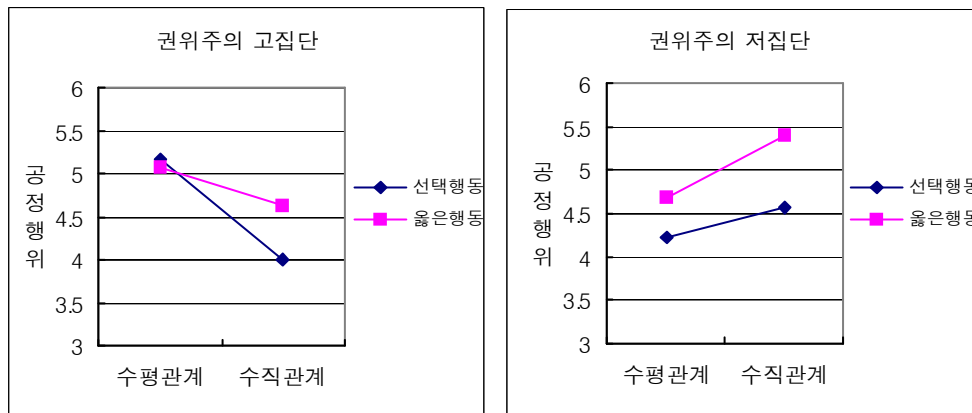


그림 2.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 집단에 따른 관계와 행동판단의 상호작용효과

K C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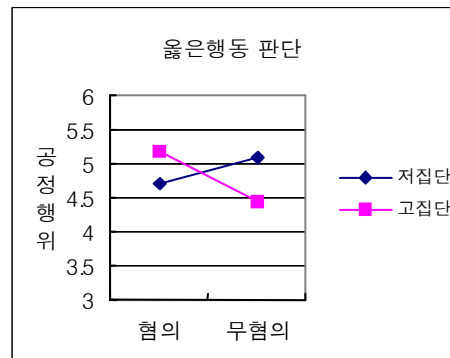


그림 3. 수직관계의 공정중심상황에서 권위주의의 집단과 상황결과의 상호작용

K C I